

■ 코스피지수 1,700선 돌파 의미

시가총액 1조달러 ... '한국증시 2막' 시작

코스피지수가 1,700시대를 열고 5월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5월 한달동안에만 10.29%가 올라 2005년 11월 12.03% 상승 이후 1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상 최고치인 1,7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일본·중국·인도에 이어 아시아에서 4번째 기록이다.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 빚어질까 =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국내증시가 향후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국내 증시의 상승기반이 일정 부분 중국 증시에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증시의 조정이 국내 증시의 조정으로

장기 상승추세 ... 차기 주도주 노려라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중국 증시의 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한·중 증시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국 증시의 연관성이 높아 지속적인 디커플링은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태강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의 급격한 조정시 그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국내 일부 업종과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코스피지수의 급락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열 대우증권 연구원은 "4

월 이후 지수 상승 과정에서 중국 증시의 영향력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양국 증시간 탈동조화 현상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선·기계·철강 등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 증시 조정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월엔 어떻게 투자하나 = 6월 증시에 대해 증권사들은 장기 상승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철강 등 기존 주도업종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주도업종에 대한 부

분적인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현 주도주와 차기 주도주를 구별해 업종별 종목별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삼성증권은 바닥을 통과하고 해외수주 모멘텀이 건재한 건설업종과 안정적 이익과 모멘텀을 보유한 금융업종을 차기주자로 선택했다. NH투자증권도 금융업종을 추천했다. IT업종은 반등 가능성으로 이익 모멘텀 강화 기대감이 확대되는 IT섹터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대한투자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은 조정시 기존 주도주에 대해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주도주 이외에도 대한투자증권은 금융·통신·IT업종 중 LCD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관세통관 도우미’ 1일 체험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손정준)이 위촉한 '관세통관 도우미(Customs-Family-가운데)'가 지난달 31일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수하물 검사 등 휴대품통관 1일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광주세관 제공)

보험설계사 합부로 못 자른다

금감위, 최소한 1년 보장 ... 보험금 대납도 금지

오는 10월부터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상품판매를 맡기는 위촉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은 최소 1년을 보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한 영업목표의 달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설계사 표준 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의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의 위촉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불공정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라도 법령위반과 서류 위·변조, 내규 위반, 금융사고, 최저실적 미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

설계사 지원, 일반적으로 정한 모집실적을 강요하거나 활동점포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사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지된다.

부담한 계약해지 등 보험사의 불공정행위로 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예고한 뒤 설계사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사가 출산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신규 판매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3개월까지는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

/연남뉴스

손우철의 행복한 '부자되기'

생활보험 제대로 알기

사망·연금 등은 생명보험 유리

상해·질병 등 다양한 혜택 '통합보험' 좋아
퇴행성 질환·치매는 보장 안돼 주의해야

요즘 손해보험사들이 '생활보험'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생활보험이란 기존의 손해보험사 실손 보상형 보험을 일컫는 말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발생에 대한 보장부터 화재, 도난으로 인한 재산손실이나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비신체적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 생활속에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돈이 들어가야 마련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사망에 대한 위험과 은퇴 후 생활자금 고갈에 대한 위험은 생명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은 손해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망과 연금과 같이 정액제로 발생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유리한 반면, 의료비와 기타 재산상의 손해는 의료보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 추가, 차후 담보 업그레이드 등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이러한 생활보험도 모든 범위의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보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 비노기관련 질환, 항문관련 질환 등은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험회사에 따라 퇴행성 질환 및 치매 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차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또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배상책임과 관련된 벌금, 형사합의금, 방어비용 등의 특약을 설정할 경우 차량관련 사고에 대비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약물복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위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4월 서비스업 생산 5.1% 증가

주식시장 활황 여파 금융·보험업 1년만에 최고치

지난 4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해 전달의 증가를 둔화세를 벗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2월 6.7%보다는 낮은 것이나 3월 4.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전월(계절조정)에 비해서는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증가세가 힘입어 0.4% 증가해 3월(-1.1%)의 감소세에서 한 달만에 벗어났다.

업종별로는 주식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금융 및 보험업이 11.1%나 증가해 작년 4월 11.8% 증가한 이후 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금융업은 일반 은행과 투자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16.6% 증가했고, 보험 및 연금업은 손해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6.7% 늘었다.

특히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증권 및 선물중개업 등 금융관련 서비스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6.3%가 증가해 작년 5월(21.1%) 이후 11개월 만에 증가

세로 돌아섰다. 도·소매업은 자동차판매의 증가율이 3월 9.0%에서 4월 13.7%로 높아졌고 도매업도 3월 2.7%에서 4월 6.3%로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4.0% 증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권(-1.6%), 호텔(-0.2%) 부문의 부진으로 숙박업이 0.5% 감소한 반면 음식점업은 1.8%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1.5% 늘었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부동산업(-1.7%)이 전달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기계장비 임대업이 전달(7.5%)의 2배를 넘는 15.5%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3.5% 증가했다.

/연남뉴스

하반기 경기회복 속도 '완만'

전경련 경제전망세미나 ... "1분기 저점 통과"

올해 하반기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 속도에 대외여건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급변 하반기 국내외 경제, 수출, 국제금융시장, 석유 및 원자재 시장 전망을 주제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그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경기 약화,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원화까지 절상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도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부동산 관련 세부담 증가로 제한적인 회복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유가와 환율 안

정과 같은 단기대책과 더불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제 개편, 기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민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내수 및 투자회복으로 연간 4% 중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영대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경제 호조로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샌드위치'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화 환율 하락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채산성이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기가 둔화되면 수출에 대한 과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주말·휴일 범위 확대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자가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특약 상품의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손해보험사들이 이차적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의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특약에서 주말의 범위가 현행 토요일 0시~일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넓어졌다.

휴일의 범위는 당일 0시~밤 12시에서 전날 오후 6시~휴일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에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연남뉴스



삼성 '애니콜 미니스케치폰' 삼성전자가 지난 달 31일 출시한 에디션 II의 슬라이드형 모델인 '애니콜 미니스케치폰'을 영화배우 전지현이 선보이고 있다. 미니스케치폰은 올 패셔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과 일치해 소비자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산 종이 제품 美, 반덤핑 관세 부과

미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인도네시아산 고품질 종이 제품(아트지)에 대해 고품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99.65%, 한국산은 30.86%, 인도네시아산은 10.85%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판정했다. 미국 내 제지업체들은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고급 잡지와 연례 보고서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품질 종이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값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이를 막기 위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3개국 제지 수입품에 대해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앞서 지난 3월 30일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20.35%의 보조금 상계관세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 아트지를 수출하는 국내 제지업체 6곳 중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 한국제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무형의 관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신선유통 '한두레 마을' 1호점 오픈

(주)신선유통은 최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 '한두레 마을' 1호점을 오픈하고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및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한두레 마을'은 지역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

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상품을 공급한다. 본점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으며, 광주원에농협과의 산지 직송협정 체결 등을 통해 연 4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문의 062-512-3883.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